

# 기부행동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자아존중감과 복지책임주체 인식을 중심으로

박성택\*, 김윤하\*\*, 김태웅\*\*\*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부림 글로벌\*\*,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Giving Behavior : focusing on Self-Esteem and Perceived Responsibility toward Social Welfare

Seong-Taek Park\*, Woon-Ha Kim\*\*, Tae Ung Kim\*\*\*  
School of Busines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Boolim Global\*\*  
School of Business, SungKyunKwan University\*\*\*

요 약 기부행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자원을 남과 공유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선과 복지 분야에 기여한다. 기부행동의 원동력에는 소득, 연령대, 성별, 종교, 교육수준, 주거지역, 조세정책 등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을 포함하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 외에 자아존중감과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기부에 대한 참여 여부, 기부노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소득과 자아존중감은 기부에의 참여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복지책임주체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참여의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에 대한 기부액수 비율로 정의되는 기부노력은 소득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기부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나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기부행동, 기부노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복지, 토빗 모형

**Abstract** Giving behavior can be defined to be a behavior intended to benefit the society's charity works and public works via sharing one's financial resources. The determinants of giving behavior largely consist of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the income, age, gender, religion, education level, residential areas, and tax deduction policy, etc. This paper considers the income level, self-esteem, and perceived responsibility toward social welfare, as the major research variables. Statistical results, based on 2014 Korean Welfare Panel data, show that the income level and self-esteem have positive influence on participation intention in charitable giving. However, welfare responsibility has negative impact on participation intention. Second, household income was the only salient, negative factor for giving efforts defined as the amount of donation over income, implying that the higher income brackets are giving less money relative to their income level, than those with lower income level. Contrary to our expectation, self-esteem and welfare responsibilit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natory variables.

**Key Words** : Giving Behavior, Giving Efforts, Self-Esteem, Social Welfare, Type II Tobit model

Received 22 August 2017, Revised 25 September 2017  
Accepted 20 October 2017, Published 28 Octo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Tae Ung Kim  
(SungKyunKwan University)  
Email: tukim@skku.edu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 1. 서론

나눔은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구성원들의 복지향상과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현금이나 그 외 가치 있는 개인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현시대 구성원들의 공감대로 정리되어야 할 개념이다. 나눔은 자발적 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강제성이 없으며 또한 나눔의 대가로서 별도의 등가적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 행위이며 이타적이면서도 자기애를 반영한다. 개인이나 단체에게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에는 현물, 신체 일부, 시간, 재능 등과 같은 유·무형의 자원이 포함된다[1].

나눔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행위는 기부행위이다. 골프나 야구,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분야의 인기스타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의 기부 소식을 신선한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여러 기업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기부활동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상당한 교감을 불러일으킨다. 참고로 ‘국내 나눔 실태 2014’에 의하면 2013년도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은 총 12조 4,900억 원이며, 이 중 개인의 기부는 약 62.7%로 법인 기부금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1]. 절대적인 액수는 상당하지만 국민소득을 감안한다면 그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영국의 자선관련기관인 CAF가 발표한 기부지수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은 조사대상 135개국 가운데 64위였다. 2011년 57위, 2012년 45위였음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오히려 기부문화가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금기부만을 따져본다면 55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2]. 세계기부지수에서는 미얀마가 1위, 미국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금기부지수도 미얀마가 1위이다. 우리나라가 2016년 GDP규모가 전 세계 11위 정도로 추정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기부지수는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 위치를 지키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기부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며 세금제도 등의 정책적 뒷받침도 미진하다. 2013년도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기부나 자원봉사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무려 57.5%로 나타나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나 나눔 문화에는 다소 인색한 수준이라고 평할 수 있다[3].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회구성원들은 정부나 공공기관 외에도 사회복지관련 비영리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규모가 줄어들면 조직 자체의 지속가능경영과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기부를 통한 재정확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부활동은 소외계층을 도와준다는 일차적인 효과 외에도 사회계층 및 구성원 간의 신뢰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고 건전한 사회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눔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4]. 특정 조직에 대한 기부는 사회구성원들이 그 조직을 신뢰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선조직 입장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으로 부터의 기부액수는 조직의 사회적 신뢰성 평가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기부행동, 특히 그 비중이 높은 개인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 성별, 종교, 교육수준, 기부금에 대한 세제감면제도, 가치관 등 매우 다양하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감면을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개인의 기부행동을 유도할만한 단기적 요인은 찾기 어렵다. 외국의 기부행동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벗어나 다각적인 방면에서 기부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기부행동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람의 행위로 이해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도 기부행동의 동기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제시한 다양한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5,6].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도 자신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회나 조직의 공공복지사업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축이론을 통해서도 기부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논의해 볼 수 있다. 구축이론은 복지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증가하면 민간투자가 감소한다고 이론이다. 즉, 정부의 복지관련 예산 증가는 복지의 책임 주체가 정부에게 있음을 시사하게 되고, 이와 같은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은 기부활동을 축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을 포함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에 자아존중감과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기부에 대한 참여 여부, 기부노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기부행동의 이론적 배경

### 2.1 소득과 기부행동

기부행동은 재화 소비를 동반하므로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면 적극적인 기부행동을 하기 힘들다. 소득이 많아지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 기부를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7]. 그렇지만 기부할 의사가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소득계층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9]. 2002년 자료를 활용한 연구[9,10]에서도 소득은 기부참여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 참여의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11]. 과거에는 소득이 기부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부참여도가 높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선단체에 더 많은 기부를 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된 바 있는데, 이는 아마도 기부에 수반되는 세금공제 혜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7,12,13].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고소득계층은 동일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혜택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실제 기부에 소요되는 실질적 비용이 줄어들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총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렇지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기부금액이 증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일부 선행연구[16, 18]에서는 소득이 소득대비 기부금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일수록 오히려 소득대비 기부금액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13,15]. 또한 흥미로운 연구결과로서 U자형 함수형태를 제시한 연구[12,16]도 발표된 바 있다. 즉, 소득이 낮거나 또는 높은 집단에서는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금액을 기부하지만 중산층은 오히려 낮은 비율의 금액을 기부한다는 의미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소득대비 기부금액에 대한 연구는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아름다운재단의 2012년 연구에서는 U자형 함수형태가 제시된 바 있지만[17], 종교조직에서의 기부를 분석에서 제외하면 U자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18]. 저소득층의 경우 기부금액에서 종교성 기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이를 제외하면 U자형 함수형태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2 자아존중감과 기부행동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를 반영한다. 자신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태도이기도 하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심리학적 연구요인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학업성이나 행복, 직무에 대한 만족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와 갈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념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9,20,21,22]. 자아존중감은 자기가치 또는 자존감과 유사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Rosenberg [23]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에 대해 지각하는 주관적 가치로, 자아에 대해 가지게 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 선행요인으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측면까지 포함한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주위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할 것이며,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이나 업무 수행능력도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기부행동과 관련하여서는 Komter[5], Sargeant[6], Dawson[24] 등이 기부행동은 자신의 자아 이미지와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기부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남이 자신에 대해 갖게 되는 인상을 중시하며, 봉사활동에서 느끼게 되는 만족이나 보람도 개인의 자아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부행동은 기부자의 사회적인 평판을 높이고 체면상승을 이끌어내게 되어 자아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 2.3 구축이론과 기부행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책임을 많이 질수록 적절한 조세감면혜택이 없다면 개인의 이타심이나 자발적 협력에 의한 기부행동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25]. 기부행동에 관한 일종의 구축이론(crowding-out effect)이라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국가가 세금으로 공공재를 구입하여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구태여 자신이 타인을 도와야 할 책임이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수록 민간의 기부행동은 구축된다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다양한 많은 복지서비스를 요구하지만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올려서 재원을 확보하자는 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부문화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개인의 기부행위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문제 영역별로 정부지출금액과 민간 기부액 간의 관계를 살펴본 Payne[26]의 연구를 참고하면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민간 기부액은 53센트나 감소한다는 통계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Bielefeld et al.[27]도 국가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규모가 커질수록 민관이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 금액과 민간복지의 재원금액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인식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국가의 복지제도는 이해관계, 사회규범, 가치관 등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구성원의 행동 변화를 초래하는데[28], 복지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민간의 기부활동을 구축시킬 커진다. 그렇지만 오단이와 김사현[14]의 연구에서처럼 정부의 복지확대를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기부액 수준과 기부노력이 높으며, 정부의 복지제한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기부노력이 낮다는 정반대의 결과도 발표한 바 있다.

#### 2.4 그 외 기부행동 영향요인

기부행동에는 소득수준, 자아존중감,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등의 요인 외에도 성별, 연령, 종교, 거주 지역,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기부행동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이타적인 성향을 가지며 돌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는 강하지만 기부금액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29]. 연령은 기부행동과 연관성이 높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제적 여유가 생겨 기부행동이 강화되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데, 상당수 실증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11,14,30]. 교육수준은 기부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교육수준과 기부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14,30,31], 기부금액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 설명요인으로 밝혀졌다[14,32]. 종교 역시 기부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종교 유무는 기부액수[13,14,32], 기부노력[1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도 기부행동과 다소 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취약계층의 존재가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민간의 자선행위를 이끌어낼 여지가 크다. 자선적 행동은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연구 결과를 살펴보다도 거주 지역은 기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Carroll, McCarthy와 Newman[33]은 대도시에 살수록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 도시지역일수록 기부요청을 자주 받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Bekkers와 Wiepking[7]은 소도시에 살수록 기부에의 참여확률이 높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는데, 시골일수록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소속감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3. 설문자료의 속성과 통계적 분석과정

#### 3.1 연구문제와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기부활동에의 참여 여부와 기부노력, 즉 소득에 대한 기부금액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각기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소득수준과 자아존중감 및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차이가 기부참여자의 기부참여와 기부노력에 미칠 영향 정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 모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여부, 종교유무, 거주지역 등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한국복지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34]를 일부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소득과 기부금액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구사회학적특성과 자아존중감이나 복지서비스 구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인식에 관한 부가적인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가 필요하므로 전체 조사자료 17,984 사례 중 복지인식에 관한 항목이 포함된 4,213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3.2 주요 연구요인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 자아존중감 및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등이 개인의 기부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부노력은 소득수준 대비 기부금액을 의미하며 연간 기부총액을 연간 총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소득수준은 해당 가구의 총소득으로 세급이나 각종 사회보장 관련 보험료를 내기 전의 소득액으로 정의하였다. 기부노력요인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부총액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자아존중감은 <Table 1>에 제시된 Rosenberg [23]의 Self-Esteem Scale을 활용하였다. 10개 문항 모두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항목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Table 1> Self-Esteem Scale by Rosenberg[23]

1	On the whole, I am satisfied with myself.
2	At times I think I am no good at all.
3	I feel that I have a number of good qualities.
4	I am able to do things as well as most other people.
5	I feel I do not have much to be proud of.
6	I certainly feel useless at times.
7	I feel that I'm a person of worth, at least on an equal plane with others.
8	I wish I could have more respect for myself.
9	All in all, I am inclined to feel that I am a failure.
10	I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myself.
* Item 2, 5, 6, 8, 9 are reverse scored.	

<Table 2> Scale for Perceived Responsibility toward Social Welfare

1	A mother should take care of her children.
2	Social welfare programs should not cover the entire population; instead, it should target only the poor population below the poverty line.
3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minimum cost of living to the people in need, even to those who are employed or capable of working.
4	The sons and daughters are entirely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5	The government should only provide the minimal healthcare insurances and individuals should cover the rest with private insurances.
6	Education programs (until college) should be provided for free.
7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should be provided for free.
* Item 1, 2, 4, 5 are reverse scored.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항목은 한국복지패널의 복지인식 부가조사 10개 항목 중 7개 문항을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문항은 역코딩을 통해 그 값이 클수록 복지책임주체가 정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 3.3 통계적 분석과정

기부행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응답자 중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에 대한 것이다. 기부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기부금액에 대해 무응답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조건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기부금액에 응답한 사람만을 표본으로 선정하게 되면 일종의 표본 선택편의가 발생한다. 모집단으로부터의 표본선택과정이 연구문제에서의 결과변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편의 추론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험이 없거나 혹은 일정 수준이하의 활동을 0으로 처리하여 좌측이 절단된 자료(left-censoring)들을 최소화 승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게 되면 추정치에 편의가 초래된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흔히 Tobit 모형과 Type II Tobit 모형[10,14] 등을 활용한다.

Tobit 모형은 기부행동을 하나의 함수로 가정하고 기부 참여와 기부 노력의 설명요인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이를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이다. 반면 Type II Tobit 모형은 기부참여와 기부노력의 결정과정을 분리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Type II Tobit 하에서는 기부참여와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참여 여부와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요인들이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Type II Tobit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Type II Tobit 모형은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참여여부에 대한 분석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y_1^*$ 은 관측 불가능한 변수를 의미하는데,  $y_1$ 은  $y_1^*$ 이면 1이고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변수이다. 제 2단계는 결과방정식(outcome equation)을 도출하는 과정인데, 이 단계에서  $y_1^*$ 는 관측 불가능한 관심변수로  $y_1 = 1$ 일 때만 관측되며, 관측된 값을  $y_2$ 로 정의한다.

$$y_2 = \begin{cases} y_2^*, & \text{if } y_1 = 1 \\ -, & \text{if } y_1 = 0. \end{cases}$$

Type II Tobit 모형은 다음과 같은 모형을 가정한다.

$$y_1^* = \mathbf{x}_1' \beta_1 + \epsilon_1, \quad y_2^* = \mathbf{x}_2' \beta_2 + \epsilon_2$$

이 모형의 핵심은 오차항인  $\epsilon_1$ 과  $\epsilon_2$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  $\beta_2$ 를 추정하는 데에 있다.  $\epsilon_1$ 과  $\epsilon_2$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rho$ 의 추정값 또는 람다값(lambda, 또는 Inverse Mills ratio)이 유의미하지 않으면 제 1단계인 선택모형과 제 2단계인 결과모형 간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며, 이 경우 일반선형모형을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해진다. 즉, Type II Tobit 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람다값을 활용한다.

Type II Tobit 모형을 가중치비용이 가능한 최우(Maximum Likelihood) 추정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Heckman의 2단계 추정방법과는 달리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Type II Tobit 모형에서 1단계와 2단계에서 동일한 설명변수들을 사용할 경우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차 선택모형에서 사용한 설명변수 중 하나 이상의 변수를 2차 모형에서 생략하고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10,14]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따르고 있다.

#### 4. 통계적 분석결과

#####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데이터[34]는 응답자가 총 4,213명으로 남자가 1,956명으로 46.4%, 여자가 2,257명으로 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47.7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수준 이상이 1,981명(48%), 대학수준 미만이 2,232명(52%)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189명(53%),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2,024명(47%)이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857명으로 20.4%, 광역시가 1,020명으로 24.2%, 시지역이 가장 많은 1,994명(47.3%), 그 외 군지역이 342명(8.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기부참여여부와 기부노력 두 가지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종교적 기부를 제외한다면 전체 4,213명 중에서 11.9%인 500명만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일반인들의 기부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부참

여자들의 기부액 평균은 58.61만원이고 중앙값은 30만원으로 기부액 규모 역시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로그를 취한 기부노력의 평균값은 0.8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4.2 기부노력의 영향요인 분석

Type II Tobit 모형은 기부참여 여부를 분석하는 1단계와 기부노력에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2단계를 하나의 모형으로 분석한다. 제 1단계에서는 기부행동에의 참여 여부(1 또는 0)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소득수준, 자아존중감, 복지책임주체 등의 3개 요인을 도입했으며,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종교유무, 거주 지역, 교육수준, 고용여부 등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요약되어 있다. 1단계의 기부참여 모형과 2단계의 기부노력 모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모수인 rho의 95% 신뢰구간은 0.086에서 0.619이며, 람다계수의 95% 신뢰구간은 0.096에서 0.875로 추정되어, 두 계수값 모두 통계적으로 0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참여 모형과 기부노력 모형의 상관관계 검정은 우도비 통계량을 사용하였는데, Wald test의 p값이 0.012로 나타나 Type II Tobit 모형의 사용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회귀계수의 유의성 평가에 사용되는 Wald Chi2의 p값은 .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단계 기부참여 여부에 관한 주요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수준은 계수값이 0.416(p < .000)로 기부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역시 계수값이 0.318(p < .004)로 기부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책임주체는 계수값이 -0.252(p < .05)로 나타나 기부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책임주체 인식에 대한 값이 클수록 책임주체가 정부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므로, 계수값이 0보다 작다는 것은 복지책임주체를 정부라고 인식할수록 기부참여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통제변수들의 영향력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할수록, 직장을 가진 취업자일수록, 그리고 종교를 가질수록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거지역에 따라서는 기부노력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기부노력에 관한 주요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살

<Table 3> Statistical Results from Type II Tobit Model

		Stage 1 : Participation Intention in Giving		Stage 1 : Giving Efforts (the Ratio of Donated Money to Annual Income)	
		coefficients	P >  z	coefficients	P >  z
Independent Variables	Income	.416	.000	-.446	.003
	Self-esteem	.318	.004	.107	.645
	Perceived Responsibility toward Social Welfare	-.252	.008	.237	.241
Control Variables	Gender	.045	.585		
	Age	.009	.002	.027	.000
	Education	.630	.000	.511	.014
	Employment	.387	.000	.379	.093
	Religion	.201	.013	.533	.002
	Residential Area	.190	.149		
		coefficients	P >  z	[95% Conf. Interval]	
Rho		.387		.086	.619
Sigma		1.263		1.112	1.434
Lambda		.486		.096	.875
Wald Test(rho=0)		6.20	.012		

해보면, 우선 소득수준은 계수값이  $-0.446(p < .003)$ 으로 기부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득액의 증가율에 비해 기부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아존중감과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은 1단계의 경우와는 달리 종속변수인 기부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영향 정도는 1단계 기부참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학수준 이상의 학력을 보유할수록, 그리고 종교를 가질수록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여부는 유의수준 10%에서는 다소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되었다.

### 5. 결론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복지비용이 급증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정부와 시장이 아닌 개인과 기업의 민간영역에서의 기부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해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 자아존중감,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등이 기부참여와 기부노력으로 구성된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소득수준은 기부행동의 참

여 및 기부노력에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기부참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이었지만[11,13], 최근 자료를 활용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또 다른 모형에서는 소득수준이 기부노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기부노력이 부적 관계임을 밝힌 선행연구[16,1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소득수준과 기부노력 간에 부정적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Wiepking [16]은 기부자들이 얼마를 기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저 하한선 역할을 하는 기준금액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기부금액이 월평균 1만원, 2만원, 3만원인 경우가 매우 많이 나타남으로써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금액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기부에의 참여여부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8,9] 결과와도 일치하지만, 기부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소득에 대한 기부액을 의미하는 기부노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또한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기부에의 참여여부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기부노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복지의

주체가 국가라고 인식하면 할수록 기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만, 막상 기부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에는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이 기부노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지만, 통제변수인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등은 기부참여와 기부노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지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기부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유가 기부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부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종교집단내에서는 기부활동의 사회적 가치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또한 기부 요청 자체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부에의 참여 여부와 소득수준에 대비한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부활동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기부금액 규모 자체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홍보 전략을 세우며, 또한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부행동을 기부참여와 기부노력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기부행동 연구의 체계화에 다소나마 기여했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Type II Tobit 모형을 도입하였으며 통제변수의 설정, 적용과정 및 결과의 해석 측면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2단계 의사결정이 개입될 수 있는 사회과학 문제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부관련연구에서는 Type II Tobit 모형이나 Heckman의 2단계 추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결과 해석에 있어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곤 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기부를 통한 공익달성에 주력하는 여러 비영리법인들의 마케팅 전략도 구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수준은 기부참여에 영향을 미치므로 잠재적인 기부대상층의 확보는 대중마케팅적인 속성을 띠는 홍보전략이 적절하겠지만, 기부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소득수준이 기부노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부자

들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계층별 기부니즈 등을 토대로 세분화한 뒤, 각 계층별 홍보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작정 소구활동을 전개하는 것 보다는 소득수준이 기부노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의 전개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는 기부와 관련한 변수가 많지 않다. 본 자료를 통해 비정기적 기부나 기부동기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 자아존중감, 복지책임주체의 영향만을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무엇이 있을지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기부 관련 변수를 다양화함으로써 기부행동과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도 깊은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 REFERENCES

- [1] Y.S. Chang, Sharing Korea 2014,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5.
- [2] CAF. World Giving Index 2015, 2015.
- [3] Statistics Korea (Korean Bureau of Statistics). Social Research, 2013.
- [4] C. Kang, Y. Kim, and J. Cho, "Citizens' Giving Behavior Patterns: Exploring Loyal Citizens in Giving,"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2, No. 1, pp. 205-234, 2010.
- [5] A. E. Komter, "Reciprocity as a principle of exclusion : Gift giving in the Netherlands," *Sociology*, Vol. 30, No. 2, pp. 299-316, 1996.
- [6] A. Sargeant, "Charitable giving: Towards a model of donor behaviour,"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Vol. 15, No. 4, pp. 215-238, 1999.
- [7] R. Bekkers & P. Wiepking. "A literature review of empirical studies of philanthropy eight mechanisms that drive charitable giv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40, No. 5, pp. 924-973, 2011.
- [8] P. M. Rooney, K.S. Steinberg & P.G. Schervish, "A methodological comparison of giving surveys:



- Indiana as a test cas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30, No. 3, pp. 551-568, 2007.
- [9] V. H. Smith, M. R. Kehoe, & M. E. Cremer,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Altruism and voluntary giv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8, No. 1, pp. 107-126, 1995.
- [10] W. Son & T. Park, *A Study on Private Donation of Korea*, Korean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08.
- [11] C. Kang, M. Choi and S. Kim, "An Empirical Exploration on Philanthropic Effort : Analysis on Happiness, Social Trust and Interaction Effect,"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 14, No. 2, pp. 57-82, 2012.
- [12] R.N. James, & D. L. Sharpe.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U-shaped charitable giving profil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36, No. 2, pp. 218-238, 2007.
- [13] P. Wiepking, "The philanthropic poor: In search of explanations for the relative generosity of lower income household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Vol. 18, No. 4, pp. 339-358, 2007.
- [14] D. Oh & S.H. Kim, "A Study about Relationship Between Public Welfare and Private Welfare Activities: Focused on the Effect of Welfare Perception on Private Welfare Activities," *Social Welfare Policy*, Vol. 39, No. 2, pp. 61-84, 2012.
- [15] R. McClelland & A.C. Brooks, "What is the real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charitable giving?" *Public Finance Review*, Vol. 32, No. 5, pp. 483-497, 2004.
- [16] Andreoni, J. *Philanthropy.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giving, altruism and reciprocity*, 2006.
- [17] The Beautiful Foundation. *Giving Korea 2012*, 2012.
- [18] J.A. List, "The market for charitable giving,"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pp. 157-180, 2011.
- [19] M-R, Han & H. Kim,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2, pp. 263-272, 2017.
- [20] J.H. Ha & J.M.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Level and Teaching Efficacy : Focused on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2, pp.393-403, 2017.
- [21]K. Choi & S.S. Cho, "Effect of self-esteem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at mediated by job satisfaction and adjustment to military life for Republic of Korea Army officia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2, pp. 375-383, 2017.
- [22] S.Y. Lee & J.S. Lee, "The Convergent Effect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in Femal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2, pp. 335-344, 2016.
- [23]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4] S. Dawson, "Four motivations for charitable giving: implications for marketing strategy to attract monetary donations for medical research," *Journal of Health Care Marketing*, Vol. 8, No. 2, pp. 31-37, 1988.
- [25] M. Taylor, *Anarchy and cooperation*. John Wiley & Sons, 1976.
- [26] A.A. Payne, "Does the government crowd-out private donations? New evidence from a sample of non-profit firm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9, No. 3, pp. 323-345, 1998.
- [27] W. Bielefeld, P. Rooney & K. Steinberg, "How do need, capacity, geography, and politics influence giving," *Gifts of money in Americas communities*, pp. 127-158, 2005.
- [28] C. Brooks & J. Manza, "Why do welfare states persist?" *Journal of Politics*, Vol. 68, No. 4, pp. 816-827, 2006.
- [29] Andreoni, J., & Payne, A. A. "Do government grants to private charities crowd out giving or fund-raising?" *American Economic Review*, pp. 792-812, 2003.
- [30] T.L. Drollinger & D.P. Johnson, "Life cycle,

financial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charitable donors," Proceedings of American Counsel on Consumer Interests, pp. 106-112, 1995.

- [31] J. Kim and D. Kim, "Effects of the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and Social Capital on Donation Behavio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3, No. 2, pp. 401-430, 2013.
- [32] P. Wierking & I. Maas, "Resources that make you generous: Effects of social and human resources on charitable giving," Social Forces, Vol. 87, No. 4, pp. 1973-1995, 2009.
- [33] J. Carroll, S. McCarthy & C. Newman, "An Econometric Analysis of Charitable Donations in the Republic of Ireland," The Economic and Social Review, Vol. 36, pp. 229-49, 2006.
- [34]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Korean Welfare Panel(8th year Survey Data) : User's Guide, 2014.

김 태 웅(Kim, Tae Ung)



- 1978년 2월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문학사)
- 1982년 5월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1986년 8월 : 미국 퍼듀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박사)
- 1988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관심분야 : 공급망관리, 비영리경영
- E-Mail : tukim@skku.edu

박 성 택(Park, Seong Taek)



- 2003년 8월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10년 2월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경영학박사)
- 2011년 7월 ~ 2012년 6월 : 성균관대학교 박사후연구원
- 2014년 1월 ~ 2014년 5월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연구교수

- 2014년 6월 ~ 현재 :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교수
- 관심분야 : 특허가치평가 및 특허경영, 공급망관리 등
- E-Mail : solpherd@cbnu.ac.kr

김 윤 하(Kim, Woon Ha)



- 2011년 2월 :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사회복지학 복수전공(문학사)
- 2015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부림 글로벌
- 관심분야 : 사회복지, 기부이론, 비영리경영
- E-Mail : yoonha0122@gmail.com